

한국 대중스타의 시대별 웨딩드레스 디자인 분석

이 은 정⁺ · 장 경 해^{*}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 의류학전공 강사⁺
계명문화대학 패션디자인과 조교수^{*}

A Study on Wedding Dress Design of popular stars in Korea

Eun-Jung Lee⁺ · Geung-Hae Chang^{*}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Ulsan University⁺
Assistant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eimyung College^{*}
(2006. 4. 24. 접수; 6. 30채택)

Abstract

In Korea, popular stars were the leaders of the latest fashion, who had the strong power in apparel market. Costume, especially wedding dress they worn became the focus of interest to single women of marriageable age and wedding dress co.

This study was performed to research wedding dress design (silhouette, veil, sleeves, materials, and details) from 1960's to June, 2004. Resources were extracted from the weddings photos, "My Wedding" magazine, "Vogue Korea" magazine and web sites. The materials, which could not be judged on the photos, were researched from text articles. The popular stars were TV stars, musicians, and actres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wedding dress in Korea from 1960's to June 2004 had different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1. In 1960's, wedding dress was characterized with A silhouette, long veil, set in sleeves, and hair decoration.

2. In 1970's, H silhouette decorating by belt, long veil, puff sleeves, and ruffles hemline were in vogue.

3. In 1980's, Victorian style designed by long and wide width, the leg of mutton sleeves or tightly fitted sleeves, short veil and pearl coronet, flower decoration became popular.

4. In 1990's, to reach the elegance or romantic image, it was used lace, ribbon, frill, etc., on the base of 1980's wedding dress design. Generally the girlish styles which expressed innocent and pure and feminine were in fashion.

5. In 2000's, the keyword of both luxury and simple were intended. Silhouette was designed variously, but it became slimmer and simpler. The decoration was splendid with lace, embroidery, and beads.

Key Words: Popular stars(대중스타), Wedding dress design(웨딩드레스 디자인)

⁺Corresponding author ; Eun-Jung Lee

Tel. +82-11-578-4729, Fax. +82-2-450-3304

E-mail : leeejung@hotmail.com

I. 서론

오늘날의 대중스타들은 문화상품의 일부로 존재함과 동시에, 여러 미디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문화는 흔히 ‘스타의 문화’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스타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모방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기호들이 특정한 담론을 형성¹⁾하고 있어 대단히 높은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문화상품의 판매촉진제이자 그 자체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가능하다. 또한 그들은 일반인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왜냐하면 대중매체는 대량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대중문화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의 정신적, 사회적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대중매체가 일반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비약적인 발전은 대중스타와 일반대중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대중스타들의 행동이나 패션 등을 급속하게 전파시켜 줌으로써 유행에 민감한 신세대들은 그것들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모방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패션유행은 대중스타들의 패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들은 패션의 리더로서 패션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은 공적/사적 상황에서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며 각 상황에 따라 착용되는 패션은 패션과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하나의 유행으로 탄생되고 있다. 특히 대중스타들의 결혼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그들이 착용한 웨딩드레스는 웨딩드레스의 유행경향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예비신부나 미혼여성들의 웨딩드레스 선택에 영향력을 미치는 패션 아이템이다. 대중스타의 웨딩드레스가 전파력이 큰 이유는 대중스타와 동일시되고 싶은 미혼여성의 심리적 욕구와 웨딩드레스 업체의 상업적 의도 등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예로써 1960년대 최고의 스타 커플인 영화배우 엄앵란과 신

성일의 결혼식이 매스미디어의 이목을 받으면서 엄앵란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튜입을 테마로 제작한 공단 웨딩드레스는 한복에 면사포를 쓰던 신부들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큼 사회적 화제거리로 등장하였다²⁾. 2000년대 연예계와 스포츠계의 최고 커플로 탄생한 최진실과 조성민의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받았으며 웨딩문화에 매우 막강한 영향력을 주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보트(boat) 네크라인의 심플한 디자인에 수십만 개의 투명한 비즈를 달아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한 의상이었으며, 이는 일반인들의 웨딩드레스에 비즈 장식을 유행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처럼 그들의 웨딩드레스는 그 당시의 유행을 일으키게 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영향력을 갖게 하는 데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매스미디어의 점차적인 발전과 다양함은 일반대중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전파시키고 대중스타와 대중들을 가깝게 접근시켜줌으로써 그들의 패션이 쉽고 빨리 전파되게 함을 알 수 있다. 대중스타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분석은 시대별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징을 비교 가능하게 하며, 시대별 유행경향을 가늠하게 할 수 있다. 대중스타의 개성, 취향, 정체성 등이 내재된 웨딩드레스가 미혼여성이 선호하는 유행아이템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징을 시대별로 제시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스타들이 결혼식에 착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시대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서양의 웨딩드레스가 한국의 전통혼례복과 대체되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2004년 6월 달까지를 연구대상 범위로 정하였다. 그들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분석은 실루엣, 베일, 색상, 소재, 디테일의 5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유래와 변화, 시대별 한국 대중스타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선행 연구, 문헌, 신문, 웨딩 전문 잡지 ‘마이 웨딩’(2003. 5: 2003. 8: 2003. 9: 2004. 2),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조사를 하였다. 시대별 한국 대중스타들이 착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연예인들의 결혼식을 담고 있는 사진, 웨딩 전문 잡지 ‘마이 웨딩’,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대중스타들이 결혼식에 착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분석에 있어 사진으로는 알기 힘든 소재부분은 기사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대중스타는 대중문화에 중사하는 사람들로써³⁾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중스타의 웨딩드레스의 영향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웨딩드레스 업체에게는 대중스타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토대로 한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트렌드 기획이 실행되어야 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웨딩드레스 디자인

웨딩드레스(Wedding Dress)는 서양 결혼식에서 신부가 착용하는 의상의 총칭⁴⁾으로서, 프랑스어로는 로브 드 마리에(Robe de mariee)라 한다⁵⁾.

웨딩드레스의 유래는 고대 로마에서 결혼식 때 신부의 예복으로 노란색 옷을 입고 플라메움(flammeum), 즉 불꽃 빛갈의 노란색 베일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150여년 동안 흰색의 결혼 복장에 대한 논쟁을 걸쳐 1813년에 흰색 웨딩가운과 베일을 담은 패션 그림이 유명한 프랑스 잡지 ‘Journal des Dames’에 최초로 실린 후에 그 스타일이 대중화⁶⁾ 되었고 1820년대에 흰색의 웨딩드레스로 정착되어졌다. 그 후 1840년경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실 전통인 은빛 드레스 대신 흰색공단에 오렌지 꽃으로 장식된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후 흰색 드레스는 곧 영국의 전통으로 정착되어졌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동안 흰색의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았으나 20세기부터 결혼식 날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보편적으로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고대로부터

유래되어 온 웨딩드레스는 오늘날까지도 드레스와 베일로 구성되며, 티아라, 화관, 귀걸이, 목걸이, 부케, 장갑 등이 장식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실루엣, 베일, 색상, 소재, 디테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실루엣

실루엣(Silhouette)은 복식에서는 실루엣 라인 혹은 단지 라인을 칭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형 선으로부터 발전하여 복장 전체의 형, 모습 등의 총체를 의미⁷⁾하거나 하나의 색조만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나 도안 또는 물체의 윤곽이나 윤곽이 뚜렷한 그림자를 치칭⁸⁾하기도 한다.

일반 예비 신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스타일은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져왔는데 일반적으로 웨딩드레스의 실루엣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A 실루엣은 상체는 몸에 꼭 맞고 험라인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실루엣으로 허리선이 없고 어깨선에서 밑단까지 흘러 내려 보이는 스타일을 말한다. 둘째, H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가슴, 허리, 엉덩이를 강조하지 않으나 스트레이트(straight) 실루엣보다 허리라인이 약간 들어간 호리호리한 스타일을 말한다. 보통 저지 시폰 같은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된다. 셋째, X 실루엣은 가는 허리선과 크게 부풀려진 치마가 특징으로, 가장 고전적인 신부복으로 알려진 튜더 스타일을 기본으로 한다. 넷째, 머메이드(mermaid) 실루엣은 드레스의 선이 몸매 선을 따라 슬림 하게 떨어지지만 하단부분이 작은 인어공주 꼬리 부분처럼 퍼지거나 여유 있게 넓어지는 스타일을 말한다.

2) 베일(Veil)

베일(Veil)은 얼굴이나 머리를 덮는 천으로 은폐, 보호, 장식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 이는 웨딩드레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아이템으로서 결혼식 날 쓰게 되는 베일은 신부가 처녀임을 상징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기원전 4세기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비치는 소재의 베일을 편이나 리본으로 머리에 고정시

켰으며, 중세에는 색을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소재나 장식을 강조했다. 베일의 소재는 처음에는 그물모양으로 짜여진 얇은 명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긴 베일이 만들어진 현재에는 명주, 망사, 나일론, 레이스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베일의 길이는 크게 짧은 베일과 긴 베일로 분류되는데 유럽문화에서는 전통적인 결혼식에서는 대부분 긴 베일을 착용한다. 전통적인 결혼식을 치를 때, 즉 정오 12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행하는 결혼식에서는 신부는 타원형의 레이스 베일이나 무릎길이 혹은 바닥에서 몇 야드 끌리는 긴 베일이나 어깨를 우아하게 덮는 베일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런 긴 베일과는 달리 짧은 베일은 정오 12시 이후에 치러지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결혼식에 사용되며, 짧은 드레스나 약식드레스를 착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말엽부터 조금씩 서양풍의 결혼예식이 도입되어 흰 한복에 베일을 늘어뜨리는 '동서 혼합형' 예복이 유행하였다⁹⁾.

베일 스타일의 종류는 플라이어웨이(flyaway), 엘보 렉스(elbow length), 핑거팁(fingertip), 왈츠(waltz), 채플(chapel), 캐더럴(cathedral), 먼틸라(mantilla), 워터폴(waterfall), 숄(shawl), 블러셔(blusher) 등으로 나뉘어진다.

베일이 오늘날 웨딩드레스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패션 아이템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웨딩드레스의 이미지에 따라 소재, 길이, 스타일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3) 색상

색상은 심리적인 면, 물리적인 면, 생리적인 면을 갖는 복잡한 요소로서 사람들이 의상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요소이며¹⁰⁾ 무언의 전달체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흰색하면 순결이라는 의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지만 사실 흰 드레스는 시대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로마시대 이래 흰색은 축하의 상징이었고 18세기 후반에는 부의 상징이었고 19세기 초 이후부터 순결의 상징이었다.

15세기에 흰색을 웨딩드레스 색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흰색 웨딩드레스가 신부의 상징으로 등장한 것은 1406년 영국의 필립과 공주가 에릭왕자와 결혼하기 위해 덴마크로 왔을 때 신부복이 흰색 실크 가운이었다는 묘사가 공식적인 첫 기록이다.

중세의 웨딩드레스 색상은 주로 붉은 색이 사용되었고 흰색은 프랑스 왕실에서는 장례의 색이었다. 1558년 스코틀랜드의 메어리 여왕이 프랑스로 시집갈 때 흰색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으로 인해 과문이 일긴 했으나 이를 계기로 부유한 귀족층과 부르조아 가문의 신부들은 흰색의 웨딩드레스를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하였다.

1813년 여성 잡지인 'Journal des Dames'를 통해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다시 선보이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관례화 되어졌다¹¹⁾. 이 시기에도 흰색은 가문과 재력의 과시의 의미였으나 잡지를 통해 순결의 상징성이 부각되면서 그 이후 흰색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¹²⁾.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웨딩드레스의 색상은 흰색을 비롯하여, 아이보리, 푸른빛이 감도는 흰색, 파스텔톤의 핑크색, 살구색 등이 나타나기도 하거나 금은사 장식, 색상이 감도는 비즈 장식이 사용되는 등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4) 소재

웨딩드레스의 소재는 일반 의상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고¹³⁾ 한정되어 주로 실크, 공단, 레이스, 레이스와 공단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공단은 은은한 광택을 가지고 있으며 적당히 뽀뽀해 바느질이 매끄럽게 되고 부드러운 빛을 띤다. 시각에 의해서 얻어지는 재질감에는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광택과 실의 굵기와 조직에 따라 결정되는 투시정도가 있다.

레이스는 불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웨딩드레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에 속한다. 레이스는 기계 레이스가 일반적이고, 얇고 구멍

이 뚫려져 있어 다른 소재와 혼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투명 소재와 불투명 소재의 혼합은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어 웨딩드레스 소재로도 많이 사용된다.

웨딩드레스 소재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봄과 가을에는 새틴소재의 미카도 실크, 수직 실크, 메탈릭 매시 실크, 오간자 실크, 타프타 실크, 태피터 등이 사용되며, 여름에는 시폰, 레이스, 오건디 외에 화학섬유가 사용되고 있으며 겨울에는 실크, 공단, 벨벳, 밉크를 사용하기도 한다.

5) 디테일

디테일은 드레스 자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그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단순한 형의 드레스에 디테일을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화려함이나 귀여움 등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한다¹⁴⁾.

디테일의 종류로는 플라워 모티브, 프릴, 러플, 레이스, 손자수, 코사쥬, 깃털 등이 있고 계절에 따라 모피도 사용하면서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기도 한다.

디테일의 위치는 넥라인 주위로 가슴 앞부분과 뒷 트레인의 햄라인, 뒷 허리부분으로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지고 웨딩드레스에 있어서 디테일은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 그 위치도 달라진다. 과거의 웨딩드레스는 로코코 스타일의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유행을 주도하여 로코코 복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리본, 프릴, 러플, 코사쥬 등의 디테일이 한 벌의 의상에 과도하게 장식되었으나 현재 웨딩드레스에 나타나는 디테일 포인트는 원 포인트(one point) 디자인으로 뒷 허리부분에 위치하고 리본 위에 코사쥬가 덧붙여 길게 늘어 뜨러지는 화려한 디테일이 또 하나의 트렌드로 형성되고 있다.

III. 시대별 한국 대중스타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1. 1960년대 웨딩드레스 디자인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일반적인 특징은 약간의 플레이어가 된 A 실루엣과 소매폭이 타이트한 셋 인 슬리브(set in sleeves) 형식의 반소매나 7부 소매, 라운드 넥라인, 긴 베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뒷 트레인의 장식 위치는 초기에는 허리선이었으나 후기로 접어들면서 어깨에서 늘어뜨리는 디자인으로 변화되었다. 이 시대는 일반적으로 심플함과 외형적 실루엣을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인 것으로, 이는 텔레비전의 흑백방송으로 인하여 양감표현이 대중들에게 보다 시각적 전달효과가 클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1964년 당시 최고의 배우 엄앵란의 웨딩드레스<그림1>은 단순한 A 실루엣 드레스에 쇄골이 드러나는 라운드 넥라인, 긴 베일을 착용하였고, 공단 소재를 사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하고 넥라인 부분, 스커트 부분, 7부 소매의 밑단 부분에 튜립모양의 자수 장식을 하여 귀여운 이미지와 함께 화려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7년 영화배우 고은아의 웨딩드레스<그림2>는 펌프스 끝이 살짝 드러나는 길이의 A 실루엣으로 스커트 부분과 트레인 부분에 많은 장미꽃 코사쥬로 장식을 하여 하체의 볼륨감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8년 탤런트 태현실의 웨딩드레스<그림3>은 심플한 A 실루엣에 라운드 넥라인에 중심 부분에 살짝 슬릿을 넣고 공단 소재의 긴 베일에 꽃 장식을 하여 볼륨감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맷단과 스커트 햄 라인에 타조털을 장식하여 외형적 볼륨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는 웨딩드레스 길이가 길지 않고 땅바닥에 끌리지 않을 정도의 A 실루엣과 긴 트레인, 자수 장식을 이용한 화려함과 코사쥬를 이용한 볼륨감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970년대 웨딩드레스 디자인

1970년대 웨딩드레스의 유행 경향은 H 실루엣, 퍼프 슬리브, 러플단 등의 디테일을 응용하



<그림1> 영화배우 임영란의 웨딩드레스
마이웨딩. 2000. 85(8), p.7



<그림2> 영화배우 고은아의 웨딩드레스
보그코리아. 2002. 70(5)



<그림3> 텔런트 태현실의 웨딩드레스
보그코리아. 2002. 70(5)

였고 또한 하이 네크라인에 가슴부분을 비치게 하는 시스루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그 부분에 구슬과 스팅글 장식을 하여 화려한 디테일을 표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언론 탄압에 의한 경직된 매체상황에 의해 외형적인 실루엣의 볼륨감이 축소된 슬림한 디자인이 나타났으나 웨딩드레스의 특성상 부분적인 디테일에서 화려함이 나타났다. 또한 컬러 사진의 도입으로 웨딩드레스의 장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디테일이나 장식적으로 블루 혹은 핑크의 색상 테이프를 사용하여 액센트를 준 디자인이 선보여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0년대는 미니, 미디, 맥시, 판탈롱, 샤넬 라인 등 다양한 모드가 나타나 실용적인 모드로 도착화된 시기로 H 실루엣, A 실루엣 등 허리선을 약간 강조하는 웨딩드레스가 인기를 끌었다. 어깨선을 강조한 하이 네크 라인 스타일의 등장과 60년대 유행했던 7부 소매가 퇴조하는 대신 긴소매에 비치는 레이스를 사용하여 시스루 효과를 나타내었다¹⁵⁾. 넓은 소매가 많이 선보였고 웨딩드레스의 트레인



<그림4> 텔런트김민자의 웨딩드레스 신부
보그코리아. 2002. 70(5)

이 사라진 대신 긴 베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슬림 라인으로 벨트를 장식한 것이 선보여졌음을 알 수 있다.

1970년 텔런트 최불암, 김민자의 웨딩드레스 <그림4>는 심플한 실루엣의 드레스에 깊게 파인 라운드 네크라인과 어깨에 닿을 정도의 짧고 두꺼운 소재의 베일을 착용하고 머리에는 족두리 모양의 화관을 코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5년 음악가 윤형주의 신부인 김보경의 웨딩드레스<그림5>는 깔끔한 A 실루엣에 스커트 햄라인 부분에 기계주름으로 볼륨감을 주었고 상체부분에는 레이스 장식으로 화려함을 주었으며, 베일 전체에 도트 무늬가 그려져 있어 화려



<그림5> 음악가 윤형주김보경의 웨딩드레스
마이웨딩. 2004. 131(6), p.49



<그림6> 텔런트김창숙의 웨딩드레스
마이웨딩. 2000. 85(8), p.7



<그림7> 영화배우 정윤희의 웨딩드레스
보그코리아. 2002. 70(5)



<그림8> 영화배우 유지인의 웨딩드레스
보그코리아. 2002. 70(5).



<그림9> 탤런트 전인화의 웨딩드레스
마이웨딩. 2000. 85(8), p.8.

함을 더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7년 탤런트 김창숙의 웨딩드레스<그림6>은 만다린 칼라가 달린 실루엣, 섬세한 드레이프를 잡은 스커트에 허리의 벨트장식, 넓은 소매, 몸판에 길게 달린 단추장식, 아이보리 색의 부드러운 실크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는 H 실루엣과 A 실루엣, 트레인 대신 베일 사용, 퍼프슬리브, 넓은 긴소매, 러플, 실크와 레이스를 혼합한 경향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 1980년대 웨딩드레스 디자인

1980년대에는 패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더욱 개성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였고 웨딩드레스는 가장 화려해지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대중스타들이 착용한 웨딩드레스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깨와 스커트는 부풀리고 서링이 많은 플레어스커트 형태의 X 실루엣과 뒷 트레인이 길게 끌리며, 퍼프소매에 목선은 대담하게 드러냈고 레이스 장식과 다양한 디테일의 표현이 나타났으며 특히 무늬가 있는 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에는 인어스타일이 유행되었으며, 1988년에는 복잡한 디테일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실루엣을 크게 강조하는 스타일이 나타났고, 1989년에는 흰

색 일색에서 아이보리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의 흑백방송 시대와 달리 칼라방송 이후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이 화려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깨와 스커트가 부풀려진 소위 ‘공주풍’의 웨딩드레스가 크게 유행했다. 드레스의 길이는 전보다 훨씬 길어지고 넓어졌으며, 또 목을 깊이 파고 어깨를 강조한 빅토리아 스타일이 인기를 끌면서 목선은 주름을 잡아 어깨까지 깊게 꿇고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the leg of mutton sleeves)가 유행하였다. 대신 베일은 이전에 비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머리장식은 타아라 대신에 진주화관이나 꽃을 이용한 이마 장식이 인기를 끌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영화배우 정윤희의 웨딩드레스<그림7>은 X 실루엣에 스퀘어 네크라인과 가슴부분의 레이스와 꽃으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표현하였고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화려한 화관과 베일을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6년 영화배우 유지인의 웨딩드레스<그림8>은 X 실루엣에 허리를 최대한 강조한 디자인에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와 하이 네크라인, 자수 장식의 베일로 화려함을 주었고 또한 화관에 도 큰 리본 장식을 하여 포인트를 주었으며 목부터 허리까지 단추장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0> 텔런트 하희라의 웨딩드레스
daum.net/img



<그림11> 텔런트 신애라의 웨딩드레스
마이웨딩. 2000. 85(8), p.8



<그림12> 텔런트 오연수의 웨딩드레스.
http://image.search.daum.net/img/

1989년 텔런트 전인화의 웨딩드레스<그림9>는 상체와 하체 부분을 극대화시킨 X 실루엣이었으며, 한쪽 어깨 부분을 과장되게 표현한 장식과 풍성한 코사주의 연출로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는 허리를 강조한 X 실루엣,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진주 화관이나 꽃 장식을 이용하여 풍성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1990년대 웨딩드레스 디자인

1990년대는 중반까지는 80년대 공주풍 웨딩드레스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레이스, 프릴, 리본 등의 장식효과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90년대 후반기 이후 전체적인 장식을 절제한 심플한 웨딩 디자인이 인기를 끌면서 패션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웨딩드레스의 소재가 고급화되면서 어깨를 풍성하게 하는 퍼프소매,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가 사라지고 몸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슬림 앤 롱 스타일(slim and long style), 타이트 소매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기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었다. 웨딩드레스의 소재에서도 수직 실크, 미카도 실크, 자카드, 타프트 등이 사용되었고 색상에서도 변화가 생겨 아이보리색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텔런트 커플인 최수종과 하희라의 웨딩드레스<그림10>은 과장된 X 실루엣의 오픈숄더이고 네크라인에는 코사주와 금색의 트리밍

장식으로 화려함을 극대화시켰다. 베일에도 드레스 가슴부분에 사용되어진 금색 트리밍을 통일되게 사용하였으며, 머리장식은 꽃과 비즈로 제작된 풍성한 화관을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텔런트 커플인 차인표와 신애라의 웨딩드레스<그림11>은 X 실루엣, 소매 부분과 스커트 헴라인 부분의 프릴 등의 장식적인 효과를 많이 사용하는 이른바 ‘공주풍’ 드레스의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기본적인 스퀘어 네크라인에 프릴 장식과 비즈와 진주의 장식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로맨틱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텔런트 커플인 손지창과 오연수의 웨딩드레스<그림12>는 심플한 스퀘어 네크라인의 A 실루엣에 캡 소매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상체부분에는 U자 모양으로 레이스 소재를 사용하여 속살이 비치는 효과를 주었다. 머리장식은 머리띠 형식의 꽃 장식을 하였고 자수 장식이 된 긴 베일을 착용하여 우아한 이미지로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초기는 공주풍 드레스가 유행한 반면에 후반기에는 깔끔하고 심플한 A 실루엣, 디테일의 장식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5. 2000년대 웨딩드레스 디자인

90년대 후반부터 점차 풍성한 스커트가 사라지고 어떠한 라인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슬림



<그림13> 텔런트
채시라의 웨딩드레스
보그코리아. 2000. 46(5), p.288



<그림14> 텔런트
채림의 웨딩드레스
<http://image.search.daum.net/img/>



<그림15> 텔런트
김지영의 웨딩드레스
마이웨딩. 2004. 131(6), p.282

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심플한 라인으로 전체에 비즈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레이스, 자수 등의 사용으로 디테일의 화려함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는 웨딩드레스의 키워드가 럭셔리와 심플함을 동시에 지향하게 되면서 실루엣은 슬림화, 단순화되어 A 실루엣이나 H 실루엣 등 몸의 곡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차분한 실루엣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테일과 소재는 레이스, 자수, 비즈 등을 사용하여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린 각종 웨딩 디자인 박람회에서는 새틴 소재에 꽃무늬 위주의 자수, 인조 보석을 사용한 섬세함 등의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이 강조된 웨딩드레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가수 김태옥과 텔런트 채시라의 웨딩드레스<그림13>은 슬림한 H 실루엣의 라운드 네크라인에 손목까지 내려오는 피트 앤 슬리브, 메탈릭 비즈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네크라인, 여러 겹의 높고 짧은 베일, 티아라로 머리장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가수 이승환과 텔런트 채림의 웨딩드레스<그림14>는 몸에 붙는 H 실루엣의 탑 스타일로 섹시함을 보이되 긴 베일로 청순함을 강조하여 조화를 이루었다. 야외식장의 분위기에 맞게 머리장식도 꽃을 사용하여 이마부분에 내려오게 장식하였고 머리는 생머리를 늘어뜨려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텔런트 커플인 남성진과 김지영의 웨딩드레스<그림15>는 심플하고 슬림한 H 실루엣에 끈으로 장식된 스위트하트 네크라인으로 트레인을 길게 장식하였고 베일은 특이하게 손목에 채워지는 스타일로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고 머리장식은 보석으로 된 티아라를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인체 곡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H 실루엣과 청순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대중스타들이 결혼식 때 착용한 웨딩드레스 사진을 통하여 디자인을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중스타의 결혼식 때 착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이 있었다. 1960년대는 하체의 볼륨을 강조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머리장식에 포인트를 주는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는 실용적인 모드가 정착화된 시기로 장식적인 디테일 사용 대신에 깔때기 모양의 소매, 롱 베일, 벨트 장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80년대는 드레스의 길이는 전보다 훨씬 길어지고 넓어졌으며, 또 목을 깊이 파고 어깨를 강조한 빅토리아 스타일이 인기를 끌면

서 어깨장식과 머리장식에 포인트를 준 경향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는 레이스, 리본, 프릴 등의 장식으로 로맨틱한 이미지와 우아한 이미지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는 웨딩드레스의 키워드가 럭셔리와 심플함을 동시에 지향하게 되면서 슬림 한 실루엣과 레이스, 자수, 비즈 장식으로 인한 고급스러움 등이 나타났다.

이상에서처럼 본 연구는 한국 대중스타들이 결혼식 때 착용한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은 시대에 따라 실루엣, 색상, 소재, 디테일의 변화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시대별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대한 유행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따라서 서양의 웨딩드레스가 도입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40여 년 동안의 대중스타들이 결혼식 때 착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일반인들의 웨딩드레스 유행경향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1) 정혜경 (1996). 한국 대중문화 영역의 스타시스템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2) 보그 코리아 (2002). 보그 코리아 70(2). 서울: 두산 출판, p.258.
- 3) 김정동 (1997). 현대사회의 인간의 미래. 서울: 평민사, p.45.
- 4) 라사라교육개발원 (2002). 패션용어사전. 서울: (주)라사라패션정보, p.69.
- 5) 홍돈희 (1977). 서양복식에 나타난 Robe의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5.
- 6) 김수경 (1991). 패션사전. 서울: 디자인신문사, p.166.
- 7) 이호정 (1987). 복식디자인: 기성복 디자인에의 어프로치. 서울: 교학연구사, p.33.
- 8) "실루엣"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2006. 5. 22자 기사 <http://preview.britannica.co.kr>
- 9) <http://www.isnet.co.kr/wedding/index.htm>
- 10) 김명자 (1997). 의상학 총론. 서울: 교문사, p.115.
- 11) 김수경 (1991). Op. cit.
- 12)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801&docid=6198
- 13) 정영숙 (2001).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신고전주의 복식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 14) 현선진 (1986).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1.
- 15) 정영숙 (2001). Op. cit., p.13.